

## 최소 침습적 방법에 의한 쇄골 원위부 전위성 골절의 치료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정형외과

태석기 · 정영복 · 이종석

### 목 적

쇄골 원위부 전위성 골절에서 최소 침습적 방법에 의한 내고정 후 치료 결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 대상 및 방법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 후 최소 1년 이상 추시된 쇄골 원위부의 전위성 골절 23예(평균 연령 36세; 남자 14예, 여자 9예)의 치료 결과를 알아보았다. 수술방법은 IIA형(사선형 골절선을 보이는 경우) 19예에서 봉합사에 의한 골편간 및 환상 고정법을 사용하였으며 IIB형(수직형 골절선을 보이는 경우) 4예에서는 변형 긴장대 강선 고정법을 사용하였다. 원위 골편의 크기가 매우 작았던 5예에서는 봉합사를 이용한 오구-쇄골간 고정을 추가하였다. 결과는 방사선적 골유합 시점 및 최종 추시점에서 관절운동범위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 결 과

봉합사를 이용한 고정 1예에서 불유합이 발생하였으며 5예에서 봉합사에 의한 피하 이물감을 호소하였으나 그 밖에 수술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다. 완전한 방사선적 골유합은 평균 12.5주(범위 10~16주)에 이루어 졌으며 전 예에서 정상 관절운동범위를 회복하였다.

### 결 론

쇄골 원위부의 전위성 골절은 대부분 금속의 사용 없이 봉합사를 이용한 고정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나 방사선적 유합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골절 형태에 따라 봉합사를 이용한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형 긴장대 강선 고정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